

신키리 갯도

이와미 은광의 역사를 통틀어서 광부들에게 가장 큰 과제로 여겨졌던 것 중 하나는 은 광산에서 물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갯도가 점점 길고 깊어지면서 땅속 수맥과 충돌해 홍수가 발생하는 일은 피할 수 없었는데 이는 광석의 채굴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1700년 초기까지 지하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의 출장 기관인 현지의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는 은광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은 기존의 채굴지보다 더 낮은 곳에 새로운 갯도 두 개를 평행한 형태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갯도를 통해 흘러나가 강으로 완전히 배출되게 됩니다. 신키리(‘새롭게(신) 뚫다(키루)’라는 뜻으로 이와미 은광에서는 채굴을 ‘뚫는다’고 말함. 터널이 수평 방향으로 뚫렸다는 의미)라고 불리는 이 야심 찬 사업은 막부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1720년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신키리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며 기존의 갯도보다 더욱 효율적인 채굴이나 더 깊은 지점에 있는 광맥의 발견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이 배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면서 그 광맥을 파낸 갯도를 활용해 배수와 환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제한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와미 은광의 은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신키리 갯도는 거의 한 세기 가까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도 물을 모아 긴잔(은광)강으로 흘러 보내는 등 갯도를 건설한 사람들의 뛰어난 토목 기술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